

사회

전면 주5일 수업 출발부터 파행 우려

돌봄교실·아동센터 예산없이 2학기부터 시범학교 10% 할당

광주 24곳, 전남 68곳 대상... 사교육비·자녀관리 비상

내년 주 5일제 수업 전면 확대 방침에 따라 올 2학기부터 광주·전남에서 시범학교가 지정·운영될 예정이지만, 시행 초부터 파행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애초 우려됐던 맞벌이 부부·저소득층 등의 사교육비 부담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토요 돌봄교실, 아동센터 등에 대한 지원책을 발표해 놓고도 막상 예산은 마련하지 않은 탓이다.

5일 광주시·전남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정부는 2012학년도부터 전국 초·중·고에서 주5일 수업제를 전면 자율 도입하고, 지역·학교별 여건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도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자율 시행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지난달 22일 시범학교 운영방안으로 시·도 교육청별로 10% 안팎의 초·중학교를 지정하는 안을 전달했다. 지역교육청이 특정 교육지원청을 선정해 같은 비율로 학교를 지정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시·도교육청이 10% 범위에서 이 사업을 주관하면 광주는 15개 초교, 9개 중학교, 전남은 43개 초교, 25개 중학교가 시범적용 대상이다.

그러나 정부는 예산이 없어 주 5일제 수업확대로 대체 운영해야 할 학교 내 토요돌봄 교실, 토요교육 프로그램 진행할 강사로 등을 지원할 수 없다고 밝혔다.

주5일제 시범학교의 내실있는 운영을 뒷받침하는 교직원 인센티브도 없다. 연구학교 등 교육지원 사업의

경우 교직원들에게 연구점수 등을 부여하지만, 이번 사업은 해당되지 않는다.

토요일에도 일해야 하는 맞벌이 가정 자녀에 대한 배려, 학습 부진 학생의 지도, 청소년을 위한 문화시설의 확충 방안도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고 있다.

광주 교육계에서는 “정부가 지원책이나 체계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주 5일제 수업 확대가 정착될 지 의문”이라며 “교육현실을 간과한 램 정책으로 빚어질 혼선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학부모들은 우려가 현실화했다는 반응이다. “정부 발표와 달리 시범학교를 운영할 예산이 없다는 것은 시

행의지가 없는 것”이라고도 한다. 결국 맞벌이 부부는 자녀를 학원에 보내야하고, 서민들은 그마저도 엄두낼 수 없는 처지에 놓일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편, 교육과학기술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주 5일제 수업 확대에 따라 학교 내 운동 강습, ‘스포츠 클럽·리그’ 전개 등 다양한 체육 활동 프로그램을 도입하기로 하고, 2013년까지 스포츠 강사 5000명을 배치할 방침을 내놓았다.

토요 스포츠 강사는 올해 2학기에 300명을 주5일 수업제 시범운영 학교에 우선 배치하고, 내년 2000명, 2013년 5000명까지 배치를 늘려나갈 방침이다.

올 2학기 강사의 경우 시·도교육청이 운영 학교를 지정(7월)하고 학교장이 선발(8월)한 뒤 9~12월에 배치해 운영한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레슬링 선수도 허위 장애진단

광주경찰, 수도권 대학 출신 5~6명 발급받아

현역 레슬링 선수와 코치들이 허위로 장애인 진단서를 발급받은 정황이 포착됐다.

5일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5~6명의 레슬링 실업팀 코치와 선수가 브로커를 통해 서울 모 신경외과에서 허위 장애인 진단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수도권의 같은 체육대학교 출신인 이들이 받은 장애 진단서에는 “지팡이 없이 정상적 보행이 어렵다”, “손목으로 물체를 잡지 못한다”고 기록돼 있다.

이들은 이 같은 진단서를 토대로 장애 4급(관절 장애) 판정을 받은 것

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레슬링 선수 1명이 브로커를 통해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고 나서 이를 같은 대학 동문인 나머지 선수와 코치들에게 소개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이 병원에서 지난 2년간 허위 장애진단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1400명 중 광주·전남지역 거주자 118명으로 이중 50명을 조사한 결과, 90% 이상이 허위 장애인으로 판명됐다.

경찰은 이들이 병역 기피 또는 각종 장애인 혜택 등을 노리고 브로커를 통해 허위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사건 처리해 주겠다”

6천여만원 받은

일간지 주재기자 구속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민·형사 사건 당사자들로부터 경찰과 법원 등에 부탁해 해결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6000여만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모 지방 일간지 목포지역 주재기자 A(41)씨를 구속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08년 6월 11일 업무상과실치사 사건의 피의자인 J씨로부터 경찰에게 부탁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4회에 걸쳐 1600만원을 받은 혐의다.

또 A씨는 지난 2009년 7월 경차방해금지 등의 가치본 소송을 벌이던 K씨로부터 진행 중인 재판을 승소할 수 있게 법원에 청탁해 주겠다고 4000만원을, 작년 10월에는 교도소에 수감 중인 C씨에게 보석 허가 조건으로 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목포교도소 재소자들 사이에는 변호사보다 경찰, 검찰, 법원 등 일을 더 잘 본다고 소문이 날 정도였다”고 말했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보훈 50주년 순회사진전 사진전은 10일까지 이어진다.

국가보훈처 창설 50주년, 대한민국상이군경회 창립 60주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창립 30주년을 맞아 5일 광주 시 서구 상무시민공원 광장에서 열린 '보훈 50주년 순회사진전'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사진을 둘러보고 있다. 순회 /최한배기자 choi@kwangju.co.kr

김상병 “후임병 죽이고 싶다” 말해

■ 조사결과 밝혀진 해병대 총기난사 경위

해병대 2사단 8연대 생활관에서 일어난 총기 난사로 4명의 병사가 숨진 것과 관련, 가해자 김도(19) 상병이 이번 사고로 사망한 같은 소대 후임 권모(20·사망) 일병에 대해 “죽이고 싶다”고 말한 것으로 밝혀졌다.

가수 서열이 엄격한 해병대 특성상 선임병이 후임병에 대해 일한을 갖는 일은 드문 일여서 향후 수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날 군 발표에 따르면 김 상병은 지난 4일 오전 10시30분경 생활관에서 후임병 전모 이병에게 “권 일병을 죽이고 싶다”고 말했다고, 전 이병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답한 것으로 파악됐다.

부대 내에서 관심사범으로 분류된 김 상병은 평소 선임 해병들로부터 후임 취급을, 후임들에게는 선임 취급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김 상병의 입에서 술냄새가 났다는 진술이 나왔다. 1시간 뒤 김 상병은 상황병인 이모 상병에게 총을 쏘 뒤, 생활관에 들어가 권 일병을 향해 총세 발을 쏘준사격했다.

이어 생활관에서 나와 이모 하사와 박모 상병에게 총을 쏘 뒤, 권모 이병에게도 총을 쏘려 했지만 권 이병이 강하게 저지해 김 상병을 내무반 밖으로 몰아냈다. 권 이병은 이 과정에서 무릎에 총상을 입었다.

김 상병은 5일 대전국군병원에서 진행된 사고조사단과 문답을 통해 “이번 사고원인이 개인 신상 문제나”고 묻자 “아니다. 너무 괴롭다. 000의 주도로 후임병들이 선임 대우를 해주지 않았다. 더 이상 구타·왕따·기수 열의는 없어야 한다”고 답했다고 국방부 관계자가 전했다.

/연합뉴스

삼풍백화점 악몽이...

서울 39층 테크노마트 흔들... 수백명 대피

광진구청 3일간 퇴거명령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있는 39층 높이의 테크노마트 건물이 5일 오전 파악되지 않은 이유로 흔들려 방문객과 입주 상인 등 수백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광진구청은 이날 오후 안전진단을 위해 최소 3일간의 퇴거명령 조치를 내렸다.

테크노마트와 같은 고층 건물이 상하로 흔들리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건물을 지지하는 기초부재 일부가 손상됐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홍성걸 서울대 건축학과 교수는 고층 건물에서 상하 진동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원인에 대해 “건물 하중을 지탱하는 기초구조물이나 수직부재가 불안간 파손됐을 가능성이 제일 높다”고 분석했다.

위아래로 흔들렸다. 혹이나 하는 불안감에 다른 직원과 함께 건물 밖으로 피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광진구는 건물이 흔들린 사무동뿐 아니라 전자제품 상가와 CGV영화관, 롯데마트 등이 있는 관대동(10층)에 대해서도 오후 2시부터 사흘간 퇴거명령을 내렸다.

테크노마트와 같은 고층 건물이 상하로 흔들리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건물을 지지하는 기초부재 일부가 손상됐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홍성걸 서울대 건축학과 교수는 고층 건물에서 상하 진동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원인에 대해 “건물 하중을 지탱하는 기초구조물이나 수직부재가 불안간 파손됐을 가능성이 제일 높다”고 분석했다.

/연합뉴스

“더운데 길 안비켜 준다” 여성 뺨패러

○~낮 기온이 가장 높아지는 오후 2시에 길을 걷던 30대 여성이 “땀과 짜증났다”며 다른 여성을 손찌검했다가 경찰서행.

○5일 광주동부경찰에 따르면 최모(여·37)씨는 지난 4일 오후 2시께 광주시 동구 충장로2가 한 상가 앞길에서 서모(여·28)씨의 뺨을 손바닥으로 서너대 때렸다는 것.

○경찰조사 결과 최씨는 이날 시내에 불 일이 있어 길을 걷던 중 앞서 가던 서씨가 천천히 걸자 “땀다, 빨리 좀 가자”며 시비, 손찌검을 했는데, 경찰에서 최씨는 “너무 더워서 짜증이 났다”고 진술.

/양승헌기자 yang@kwangju.co.kr

또 터진 조선소 하도급비리

수역 금품수수 울산지역 조선소 전·현직 임원 무더기 적발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5일 편의를 봐준 대가로 조선소 협력업체들로부터 수역 임의 돈을 받아 쟁쟁한 H중공업 울산지역 조선소 전 임원 K(56)씨 등 2명에 대해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금품수수액이 적은 나머지 전·현직 임직원 7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K씨 등 전·현직 임원들에게 청탁 대가로 금품을 건넨 조선소 S협력업체 대표 J(57)씨 등 42명에 대해서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2006년 5월

부터 지난해 8월까지 협력업체 대표 B(56)씨로부터 편의를 봐 달라는 부탁과 함께 500만원을 받는 등 27개 협력업체 대표들로부터 150회에 걸쳐 3억2000만원의 금품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H중공업 M조선소 전 임원 K(60)씨는 협력업체 대표 J씨로부터 300만원을 받는 등 15개 협력업체 대표들로부터 110회에 걸쳐 2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나머지 H중공업 M조선소 전·현직 임직원 7명도 J씨로부터 적게는 수백

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씩 총 2억80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결과 전·현직 임직원들은 협력사 물량 수급 결정 및 운영 편의 등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주기적으로 금품과 향응을 받았으며, 협력사들은 부가가치가 높은 공정을 수수하기 위해 금품 로비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H중공업 계열 조선소 3개사 임직원 8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를 포착,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지적장애인 명의 도용

카드 만들어 쓴 30대 입건

진도경찰은 5일 평소 친분이 있던 지적장애인의 명의로 몰래 신용카드를 만들어 사용한 김모(36)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3월 중순께 지적장애인 신모(49)씨의 주민등록증을 이용, 신용카드와 휴대전화 등을 만든 뒤 최근까지 500만원 가량을 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함께 노동일을 하던 신씨에게 “말린 인건비를 대신 받아주겠다”며 주민등록증을 받아간 뒤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서부취재본부=박현영기자 hypark@

14만 합격자가 말한다

2012 학년도 대학편입은 김영과 함께

상위권 대학편입대비, 자타공인 대한민국 No.1
자연계열 편입합격의 열쇠, 지방 유일 실강의
편입영어(이론과정/문제풀이) 편입수학(미,적분과정/선형대수) 전남대 편입 HotPoint!, 전남대 맞춤형 Teps- Teps 대개강 (Teps + 면접대비)

편입합격자 10명중 7명은 김영출신!!
기여편이하인 미인보구권
광주 동부경찰서 뒤 (062) 227-8088
www.kimyoung.co.kr 개강 : 8월 1일